장수군, 국가예산 1348억원 확보

예산 확보 최우선과제로 필사적 노력 결실… 현안 해결·미래발전 사업 주력

장수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예산 4,000억원 시대를 앞당겼다.

9일 장수군에 따르면 2021년도에 확보한 국가예산은 전년도 대비 320억원(31%) 증가한 1,34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현안의 신속한 해결과 군 미래발전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천천 하이패스IC 설치사업(총88억원, 국44),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총153억원, 국69), ▲농산물 신선편이 가공시설 건립(총122억원, 국49), ▲축산물 육가공시설 건립(총76억원, 국3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총62억원, 국31),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총59억원, 국27)이다.

이어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총58억원, 국24), ▲장안 문화예술촌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총20억원, 국10), ▲장수읍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사업(총14억원, 국12), ▲번암면 건강 증진형 이전신축사업(총13억원, 국9)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수가야유적 복원정비 사업(총240억원) ▲장수 천천(국도 13호선)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총30억원) 등은 중앙부처 단계에서 미온적으로 검토되어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10~11월 국회단계에서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 문체위 이상직 국회의원, 국토위 김윤덕 국회의원, 예결소위 윤준병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수차례 건의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최종 증액 반영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예산 등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장영수 군수를 필두로 군 관계공무원들은 국가예산확보를 최우선과제로 필사적인 노력을 펼쳤으며, 군이 운영 중인 세종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했다.

또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 장수군 중점사업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장영수 군수는 "모든 공무원이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에서부터 국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신속히 대처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한 것이 주요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장수군의 대도약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합동 점검

군, 숙박시설·중점관리시설 등 코로나19 예방 만전

본격적인 스키시즌이 시작되면서 무주군이 사람들이 몰리는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안전재난, 환경위생, 문화체육, 관광진흥 4개 분야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11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가족호텔과 티롤호텔 등 숙박시설 2곳과 식당, 카페, 유흥·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51곳, PC방(일반관리시설) 1곳, 기타 스키용품 대여소와 곤돌라 등이다.

무주군 방역관리 점검반은 이 시설들을 돌며 3일 간 ▲출입명부 운영 및 관리(4주 후 폐기)를 비롯해 ▲출입자와 종사자 증상확인 및 마스크 착용 여부·의무 안내, ▲영업 전·후 최소 1~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여부, ▲거리두기와 손소독제 비치·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상황팀 송순호 팀장은 "전국에서 스키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어 방역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도 협조라인을 구축하고 홍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예방 차원의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방역수칙 미 준수 대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 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또는 시설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9일 진안고원시장 일원에서 '1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안군, '1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9일 진안고원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1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 안전재난과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캠페인에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군민들에게 겨울철 한파 대비 안전수칙,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군민안전보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적극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수도계량기나 노출 배관은 보온 조치를 해주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는 등 겨울철 안전수칙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한다"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내년도 교부세 2002억원 운영

8억원 추가 확보… 도내 동부권 군부 중 최다 확보 성과

진안군은 9일 하반기 특별교부세 8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2021년도 교부세를 총 2,002억원을 운영하게 되어 현안사업 추진 등 재정운용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군 현안사업인 ▲도시계획도로(한전진안지사~진안여중) 개설사업(4억원)과 ▲동향 양지마을 위험도로 긴급 정비사업(4억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의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도시계획도로(한전진안지사~진안여중) 개설사업은 현재 진안초에서 진안군청 구간 도로의 과도한 교통량 분산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경수 및 경관조명 시설 등을 정비하여, 그동안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 주거환경까지 조성함으로서 시가지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동향 양지마을 주민이용불편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확보로 낙석붕괴 구간 정비와 체련공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교부세에 대한 철저한 통계지표 관리와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건의, 직원 역량교육 등을 통해 도내 동부권 군부 중 가장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기여했다.

전춘성 군수는 "앞으로도 정부 시책기조에 맞는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교부세 등 국가지원사업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시급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9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전 부서와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총 136건(시정 20건, 처리 91건, 개선 25건)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노력과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철저, 각종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등 총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둘째, 구)장계남초등학교 방치 및 관리부실 방안 마련 강구, 주민건강복지서비스 체감률 향상 노력, 읍면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활용 제고 등 주민불편 적극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셋째, 장수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축 분뇨를 활용한 퇴비 소비량 증대 확대 노력, 장수한우 명품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허가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노력과 오·폐수 및 악취 등 관리감독 철저, 슬레이트 무단적치 단속 및 철거비용 지원을 통한 환경오염 파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2유있는 홍삼콜라겐' 신제품 출시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박충범)에서 (유)나눔푸드에 기술이전을 한 '2유있는 홍삼콜라겐'이 출시되어 대중들을 찾아간다.

'2유있는 홍삼콜라겐'은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홍삼농축액과 석류농축액, 오미자농축액, 저분자피쉬콜라겐 등을 함유한 이너뷰티 스틱젤리 제품으로 지난 10월 관내 홍삼제품 가공기업인 (유)나눔푸드(대표 김치훈)에 기술 이전됐다.

김치훈 대표는 "홍삼연구소의 기술이전을 통한 신제품 출시로 홍삼 스틱젤리 시장을 더욱 확대 시키고, 홍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진안홍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충범 소장은 "진안홍삼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제형의 홍삼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안홍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관내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농기센터, 호박고구마 자동 세척시스템 구축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는 지역 대표 소득작목인 호박고구마 자동 세척시설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9일에는 전춘성 군수와 진안호박고구마 연구회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 세척시스템 시범 가동식을 갖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척시설은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마령면 호박고구마 단지 일원에 국비 2억원을 투자해 설비를 갖추고 선별장과 함께 1일 8톤 규모의 자동 세척·건조·살균·포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들의 편리성을 더했다.

진안고원 마령 호박고구마는 그동안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비세척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해 판매처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농가 소득 향상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척 후 출하하는 고구마는 적외선 살균 건조로 껍질에 있는 오염균을 없애고 색택이 탁월하며 상품성과 유통기간이 늘어나 일반고구마에 비해 10kg 상자 당 5,000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노인의치 지원 호응

무주군은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를 지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등 20명으로 사업비 900여만원을 투입해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용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또 노인불소도포와 치면세정술, 치석제거 등 구강관리도 지원한다.

이외 의치 사용여부와 불편사항 등을 살피며 틀리보관함과 세정제 등을 무료 배부하고 있으며, 틀니 관리에 대한 방법도 교육 중이다. 군은 노인의치 시술 후 1년간 무료로 관리해주고 4년 이내 발생하는 사후 관리비용도 1년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